

원전 인접 울주군, 환경방사선량 정상 범위

등록 2013.01.14 11:27:09 | 수정 2016.12.28 06:51:42

【울산=뉴스시스】유재형 기자 = 원전이 위치한 울주군 지역의 환경방사선량이 정상치인 것으로 조사됐다.

울산 울주군은 2012년 7월부터 최근까지 약 6개월간 차량탐재 방사선 탐사장비를 이용해 환경방사선 분포를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.

조사 결과, 환경방사선량률 범위는 52~184nSv/hr(평균 102nSv/hr)로써,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조사한 평상시 우리나라의 환경방사선량률 범위(50~300nSv/h)에 포함됐다.

이번 조사는 군내 도로 약 800km를 대상으로 1만4000 이상 지점에 대해 환경방사선량률을 조사했다.

도로 이외의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측정결과를 이용한 공간분석을 수행했다.

지역 간 편차는 지질 차이에 의한 자연방사선 수준 차이, 측정일 날씨 및 주변 환경 차이, 감시장비 오차 등이 원인이지만 모두 안전 범위 안에서 변동하고 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.

울주군 관계자는 "원자력발전소 사고 및 방사선사고 등에 의한 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하다"며 "향후 지속적인 조사를 수행하고, 조사결과는 울주군 방사능홈페이지(<http://울주방사능정보.한국>)를 통해 공개하겠다"고 밝혔다.

이어 "보다 신뢰성 있는 자료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탐사장비 및 운영시스템을 보강함과 동시에 환경방사선준위 분포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 제공할 예정"이라고 말했다.

한편 울주군 인근에는 고리1, 2, 3, 4호기와 신고리 1, 2호기 등 총 원전 6기가 운영중이며 신고리 3, 4호기 등 원전 2기가 건설중에 있다.

you00@newsis.com